

Special Edition ● 기획특집

#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발전방안

A  
R  
C  
H  
I  
V  
E  
S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효율적 운영방안 ● 황동열 \_ 중앙대학교 예술경영학과 교수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의 현재와 미래 ● 명 현 \_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  
아카이브와 민속아카이브, 민속박물관 ● 김시덕 \_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추진단 전시자료과장  
건축아카이브의 개념과 운영방안 ● 전봉희 \_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지역공동체와 사진아카이브 ● 이경민 \_ 사진아카이브연구소 대표





##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효율적 운영방안

글 | 황동열 (중앙대학교 예술경영학과 교수)

### 문화유산기관으로서의 아카이브

#### ●●● 아카이브의 개념 및 역사

인류는 당시대에 산출된 기억과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전하였다. 전승된 기록은 후대에 축적되고 활용되어 기록문화를 구성하였고, 또다시 후대에 전해지면서 누적되어 사회와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기능들은 종교적 관심에 따라, 권력자의 욕망에 따라, 학문연구를 위한 수단 또는 평등한 시민사회를 요구하는 정치적 열망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서구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 온 기구가 아카이브이며, 명칭은 다르지만 동양권에서도 유사한 기구를 가지고 있었다.

아카이브의 직접적 어원은 라틴어 아르키븀(archivum)이다. 아르키븀은 ‘시초’, ‘시작’ 혹은 ‘정부기관’을 의미하는 아르케(archē)로부터 유래된 용어이다. 현대적 의미의 아카이브는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장소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아카이브는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1789년 파리에 국립아카이브(Archives Nationales)가 설립되었으며, 1796년 지방아카이브(Archives Departementales)설치에 대한 법령이 통과되었다. 1838년 영국에서는 공공기록법(Public Record Act)이 제정되었고, 1872년 캐나다에서 공공아카이브가 설립되었다. 미국은 1934년 국립아카이브(National Archives)를 설립했다.

그 밖에 독일·네덜란드·이탈리아·호주·일본·인도 등 많은 국가에서 아카이브가 중앙정부에 의하거나 지방에 분산된 형태로 설립되었다. 1948년 유네스코 후원 하에 열린 ‘아키비스트(archivist)’들의 모임을 계기로 ‘국제기록관리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CA)가 파리에서 창설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부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기록보존과 아카이브에 대한 학회가 조직되고, 아카이브에 근무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내 관련 학과가 설치·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예술기록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는 성격의 기관은 최근에 일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국영상자료원(Korea Film Archive), 국립예술자료관(예술의 전당 내),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춤자료관 연낙재(研駱齋),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아카이브, 국립현대미술관 도서관 자료실, 삼성미술관 부설 한국미술기록보존소(Archives of Korean Art)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원형 아카이브에는 디지털아카이브, 주제별·기능별 예술아카이브가 운영 중이다.

#### ●●● 문화유산기관시설 : 아카이브, 박물관, 도서관

문화유산기관인 아카이브,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포함)은 ‘인간의 사상, 언어, 행동의 기록을 모으고, 보존하며 해석’하기 위한 유사한 역할을 담당했다. 고대부터 근대 이전까지 이러한 기구들은 사회 지배계급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당대의 기록보존을 위한 권위와 존경의 상징이었다. 고대 사회에서 기록을 보존하던 장소는 궁전이나 사원이었으며, 르네상스 이후 사회구조의 변화와 인쇄술의 발전을 통해 도서관과 박물관의 분리가 시작되었고, 근대로 접어들면서 아카이브의 분리도 가속화되었다.

현대적 도서관은 상대적으로 값이 싼 인쇄서적을 보유한 사설도서관에서 시작되었으며, 17~18세기에는 국립·공공 도서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반면, 공공 성격의 박물관은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설립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카이브는 시민혁명 이후 처음으로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

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도서관과 박물관, 아카이브는 정체성·기능·역할이 더욱 세분화되어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갖고 운영되고 있고, 디지털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통합 운영되고 있다.

세 기관의 사회적 기능은 르네상스 이후 문화가 시작되어 현대에는 서로 다른 독특한 특성들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각 기관은 유사한 기능과 특징을 갖고 있으나, 소장품의 성격과 가치, 기관의 특성, 분류에 따라 큰 차이점을 보인다. 그러므로 각 기관의 정의에 따라서 기관의 성격과 기능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예술분야에서 세 기관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는데, 박물관(Museum)에서 미술자료를 다루는 미술관(Art Museum)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어 왔고, 최근에 콘텐츠(Content) 개념이 확산되면서 예술아카이브를 통해 창의적 발상과 OSMU(One Source Multi-use)의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술아카이브는 ‘예술 관련 기관에서 생산되거나 혹은 예술과 관련된 가치가 있거나 증거가 되는 기록자료를 수집·평가·분류·보존하여 유용한 정보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그 형태가 ‘기관소속아카이브’와 ‘다원수집아카이브’로 구분된다. 이와 달리 박물관은 ‘인류와 인류 환경의 물질적 증거들을 연구, 교육, 향수하기 위하여 취득·보존·연구·소통·전시를 통해 대중(公衆)에게 공개하며, 개발하고 사회에 서비스하는 비영리 성격의 항구적 기관’이다. 도서관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일반인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문화 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이다.

세 기관의 목적과 기능상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세 기관은 조사·연구·교육이라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아카이브는 증거적 가치, 즉 사료(史料)적 가치에 더 비중을 두고 있고, 박물관은 향수·감상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카이브는 다원수집 아카이브로서의 기능, 미술관은 전시·출판·연구가 중요한 기능이 된다. 다양한 수집 원천과 기록자료를 소장하는 ‘다원수집아카이브’는 적어도 최소한의 연구 기능을 필요로 한





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집하는 기록자료는 기관의 가치만이 아니라 공익적, 학문적 가치에 의해서도 수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키비스트의 윤리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연구 기능이 필요하다.

또 다른 차이점은 ‘소장품의 특성’에 있다. 아카이브는 기록자료로서 증거적·정보적 가치를 갖는 유일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반면에 박물관은 감상의 대상인 예술작품을 소장하며, 도서관은 정보적 가치를 갖는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디지털 자료 등을 소장한다. 아카이브나 박물관은 원본성이 중시되는 유일한 소장품을 갖는데 반해 도서관은 다수 발행된 자료를 수집한다. 특히, 아카이브의 경우 소장품 특성이 판매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기증에 의해 취득된다.

세 기관의 차이는 ‘분류’에서 잘 드러난다. 분류의 차이는 기관의 성격과 목적, 소장품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서로 다른 전통에 의해 만들어져 왔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미리 결정된 ‘분류체계’에 따라 개별적 항목으로 배열·기술·목록 작업을 하며, 박물관과 미술관은 배열이 아닌 개별 ‘프로그램’에 따라 기술하는 반면, 아카이브는 전통적으로 ‘소장품의 기원에 따라 배열’한다. 아카이브 분류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 즉 ‘출처의 원칙(Respect des fonds/Provenance)’과 ‘원 순서의 원칙(Original order)’이 있다. 이것은 아카이브가 증거적 가치를 중요시 해 온 전통에 기인한다.

세 기관은 공통된 문제점과 함께 현대의 기술 발전과 학문적, 문화적 관심,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세 기관은 모두 동일하게 소장품의 보존과 제공을 주요한 기능으로 가지고 있다. 소장품의 보존은 매우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며,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과제이다. 가치 있는 물체는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구히 보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기관들은 보존의 문제에 관하여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공동의 협력이 요청된다. 세 기관의 설립 목적은 소장자료의 제공을 기본 사명으로 한다. 자료의 열람·출판·전시를 통해 일반 대중(公衆)이나 연구자에게 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향수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 체계에 의한 제공방식, DB구축, 공동 색인의 필요성, 전문 용어의 표준화, 자료의 저장 문제가 공동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은 이용자의 증가와 기관의 역할을 증폭시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예술아카이브와 미술관, 미술도서관은 상호 협력을 모색하게 되었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유사기관과 함께, 지역간, 국가간 동종 및 이종 기관에서도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으며,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이러한 협력을 촉진·장려하고 있다.

## 문화·예술아카이브의 유형과 필요성

### ●●● 문화·예술아카이브의 개념과 유형

문화·예술아카이브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 생산되거나 혹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가치 있는 기록자료를 수집·평가·분류·보존하여 유용한 정보로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제 분야와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어 진다. 크게 구분하면 문화나 예술의 한 전문 분야를 집대성하여 발생한 음악·미술(시각)·무용·구술사(언어)·종교의례 등 개별 전문아카이브와 미국예술아카이브(Archives of American Art)·미국인류학아카이브(National Anthropological Archives)·일본 오사카국립민족학박물관(National Museum of Ethnology)·영국영화협회(British Film Institute)나 국제필름아카이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Film Archives) 등과 같은 주제와 기능면에서 다양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복합아카이브가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아카이브는 예술 관련 기관에서 생산되거나 혹은 미술과 관련된 가치 있는 기록자료를 수집·평가·분류·보존하여 유용한 정보로 제공하는 기관을 지칭한다. 예술아카이브는 흔히 ‘예술기록 소장품’을 지칭하곤 하는데, 적어도 19세기 중반부터 소장품(collection)이란 용어가 아닌 ‘아카이브’가 같은 의미로 잡지 제목에 사용되었다. 반면에 기록 수집품(archival collections)은 미술 관련 사진의 아카이브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 이후 예술아카이브는 박물관이나 도서관이 기관 기록자료나 예술가의 기록과 전시를 위한 기록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을 지칭하게 되었으며, 기술의 발달과 함께 시청각 자료의 수집까지 가능해진 후부터는 공연예술 분야도 포함하게 되었다.

예술아카이브의 유형은 그 소장품에 따라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예술가·수집가·화상·비평가·출판인·박물관과 미술관·예술협회·화랑 등 예술 관련 기관의 원본 기록자료를 보관하는 아카이브이다. 이 유형은 작품이 아닌 원본기록들 즉, 왕래서신·일기·메모·소품·재무서류·비평문과 전시 카다로그·포스터·초청장·사진 등의 전시 관련 기록 그리고 관련된 인물의 인터뷰

나 증언 등을 보관한다. 영국 런던의 테이트갤러리 아카이브(Tate Gallery Archives)와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국미술아카이브(Archives of American Art)가 이 유형의 대표적 사례이다.

두 번째 유형은 준 작품적 성격의 자료를 소장한다. 회화·조각·건축·산업디자인을 위한 스케치·원본 삽화 등의 시각예술에 준한 작품자료를 수집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예술적 가치에 따라서 작품으로까지 평가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지만, 엄밀하게 예술작품은 아니다. 이 유형은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국립아카이브(National Archives)의 미술부(Picture Division)와 같은 공공적 기관에서부터 미국 아리조나에 있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아카이브(Frank Lloyd Wright Archives)와 같은 사립아카이브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된다.

세 번째 유형은 참고·연구 및 교육 목적을 위해 수집된 예술작품의 사진·인쇄물·필름 등을 소장한다. 이런 소장자료는 상업적 복제·유통에 적극 활용되기 때문에 이 유형의 예술아카이브는 공공적이지만 빈번하게 상업적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이런 소장품은 정보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연구·출판·복제를 위해 사용된다. 유네스코의 국제 예술작품 사진아카이브 목록은 87개국 600개가 넘는 사진목록을 가지고 있다.

3가지 유형의 예술아카이브는 비영리적 목적에 의해 운영되는 반면, 이외에 다른 유형의 예술아카이브는 상업적 목적에 의해 운영되는 아카이브들이다. 대부분 전 세계 출판사, 광고대행사, 복제품 제작회사 등을 대상으로 미술 관련 기록을 제공, 판매한다. 일반적으로 영리, 비영리 조직을 구분하는 것은 그 기관의 목적과 사명에 따라 달라진다. 영리행위를 하더라도 기관의 목적이 비영리 성격이라면, 비영리조직으로 분류된다.

### ●●● 예술아카이브의 필요성 및 중요성

예술아카이브는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는 기관으로 예술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함께 예술 역사를 올바르게 정초(定礎)한다. 또한 후대에 문화적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예술활동에 대한 규준을 제공한다. 문화에 대한 역사적



전통과 정통성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예술분야에서도 중요해졌다. 예술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갖지 못한 민족은 이미 예술문화에 관한 한 자주적이지 못한 식민지에 불과하게 된다.

둘째, 예술아카이브는 예술 관련 기관의 투명한 경영과 책임행정을 유도하여, 사회 공공조직의 효율적·개방적 운영의 기틀이 된다. 이것은 2000년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기록물에 관한 법률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하다. 즉, 비영리 공익기관으로서 박물관, 예술대학, 예술 관련 단체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익기관은 본래의 사명을 올바르게 성취하고, 도덕적으로 고무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소수에 의해 정보가 독점되는 폐단을 막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왕성하고 다양한 연구를 촉진시켜 심도 깊은 지식을 양산할 수 있다.

셋째, 예술아카이브는 예술과 관련된 연구를 지원하여, 다양하고 심도 깊은 학문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 특히, 예술사와 예술이론, 교육, 비평과 함께 작가를 양성하는 대학, 학교에 유용한 연구자원을 제공한다. 도서관과 달리 예술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기록자료들은 유일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된다. 또한, 예술아카이브가 예술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보존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타학문과의 긴밀한 연계나 학제간 연구에도 기여를 한다.

넷째, 예술아카이브는 역사적 기록을 수집·보존하여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예술문화의 온전한 향수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전제가 된다. 이를 통해 일반대중은 예술 이외에서는 맛볼 수 없는 독특한 시청각 예술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다. 예술아카이브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 진취적으로 행동하는 기관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예술문화의 향수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예술아카이브는 예술문화의 ‘정신적 자산’, ‘토대’의 역할을 하므로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정보화 사회에서 문화와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콘텐츠이다. 기초가 굳건할수록 깊이 있고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으므로 예술아카이브는 문화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토대로써 그 역할이 적지 않다.

## 우리나라 문화·예술아카이브의 효율적 운영방안

### ●●● 문화·예술아카이브의 특성

문화·예술아카이브는 공익성·비시장성·공정성·독립성(자율성)·전문성·협력성 등 6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예술아카이브는 문화유산을 기록으로 보존하여 예술의 역사를 올바르게 정초하며, 예술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학문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공공이익을 달성한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자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는 예술문화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예술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의 차원으로부터 학회, 협회, 사설박물관 등의 비영리 조직과 지방,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에 의해 예술아카이브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예술아카이브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널리 보급함으로써 공공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예술아카이브는 투자비용 대비 적정규모의 시장을 가질 수 없는 ‘비시장성’의 특성을 갖는다. 즉, 예술아카이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자금을 시장으로부터 취득하기에는 시장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예술아카이브는 각 분야의 전문 인력들과 함께 보존을 위한 설비, 정보제공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는 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술아카이브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이익이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예술아카이브는 ‘비시장성’의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예술아카이브의 비시장성과 공익성 때문에 예술아카이브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비영리분야에서 설립·운영된다.

셋째, 예술아카이브는 예술 역사를 정초한다는 의미에서 공정성의 특성을 갖는다. 예술자료를 평가하고 선택적으로 취득한다는 점에서 공정성이 필요한 조직이다. 역사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기관은 특히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역사는 왜곡될 것이며, 일부 권력을 가진 집단에 의해 조작되고 진실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술아카

이브는 기록자료를 공정하게 수집,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어야 한다. 이외에 일반 이용자에게 기록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도 공정해야 한다. 정보는 곧 권력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아카이브는 투명한 경영과 함께 소속 임직원의 윤리의식이 중요한 조직이다.

넷째, 예술아카이브는 공정성 때문에 독립성(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조직이다. 예술아카이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돈이나 권력 혹은 이익집단으로부터 압력을 받거나 조정 당한다면, 예술아카이브는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은 물론, 예술아카이브 자체가 무의미 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성과 자율성은 제대로 된 예술아카이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특성이다.

다섯째, 예술아카이브는 전문적인 조직이다. 문화·예술에 관한 해박한 지식, 기록보존을 위한 지식, 평가 및 분류를 위한 판단, 정보제공을 위한 기술, 기록관리 경험 등 다양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예술아카이브가 제대로 설립 운영되려면, 이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술아카이브는 사회에서 다양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작가·비평가·화상 등과 화랑·박물관·예술협회·경매회사·대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정보제공을 위해서도 예술도서관, 박물관 등의 유사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6가지 특성들은 ‘문화예술아카이브가 어떠한 형태로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하는가?’라는 논제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 효율적 운영방향

문화유산 인프라로서 예술아카이브의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새로운 문화적 욕구를 수용하는 복합체제로써의 예술아카이브의 기능은 크게 기본기능과 확대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예술아카이브의 첫 번째 기본기능은 ‘수집·보존’ 기능이다. 이는 자료 수집가, 은퇴 예술가, 학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증 유치활동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수집·보존 기능은 수장 공간의 보존환경 최적화를 이룸과 동시에 밀폐

된 수장공간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 기본기능은 ‘연구기능’으로 국내외 예술자료를 조사·연구·보급하고 희귀, 소멸자료의 발굴 및 재생을 통하여 예술연구를 시행한다. 다음은 ‘전시기능’으로 크게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로 나누어지며, 내용면에서는 예술의 역사 연대별 전시와 장르별 전시로 나눌 수 있다. 예술가 개인별 자료관도 훌륭한 전시공간으로 이용된다.

마지막으로 ‘사회교육’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예술아카이브는 출판·강좌·체험 교육 및 일반 시민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워크숍을 통하여 문화예술전문가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확대기능은 문화유산 기관의 포괄적 개념이다. 예술아카이브는 도서관적 역할에 박물관적 기능을 더하여 새로운 예술연구·창조·실험 기능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 변모하고 있다. 또한 예술자료의 디지털화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여 자료보존을 위한 메타데이터의 표준화를 확립하고, 전국 문화예술공간의 정보자료관센터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자료 토털아카이브시스템을 구현하여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예술자료 종합 목록 및 통합검색시스템을 도입하여 예술자료 검색 및 열람을 지원하여야 한다. 향후 예술아카이브는 해외 예술자료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국 예술시장의 세계화에 힘쓰고 한국 예술의 국제화를 선도하며,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써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 필자소개

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예술의 전당 예술자료관 개발팀장과 미술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01 국립국악원 야경

# 국립국악원 국악 아카이브의 현재와 미래

글 | 명 현(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

국립국악원은 전통 음악의 보존과 전승, 보급 및 창조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이다. 1951년 개원 후 올해로 61년째를 맞이하는 국립국악원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맥락을 함께 한다. 『삼국사기』 「악지」에 기록된 신라의 음악 기관 ‘음성서’부터 고려의 ‘대악서’, 조선의 ‘장악원’, 근대의 ‘이왕직아악부’로 이어지는 국가음악기관의 전통을 잇고 있으니 그 연원은 무려 1,4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간다.

궁중과 민간에서 향유했던 악가무(樂歌舞)의 전통을 계승하고 재창조하기 위한 연구·공연·교육 사업을, 주요 과제인 ‘국악의 세계화·생활화·체계화’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본원과 3개의 지방국악원—국립민속국악원(남원), 국립남도국악원(진도), 국립부산국악원(부산)이 있으며 430여 명의 전속 연주단이 활동하고 있다.

## 국립국악원의 보존·전승·재창조를 위한 국악아카이브 구축 필요성

국립국악원이 맥을 잇고 있는 전통 음악·무용·연희 종목과 그에 뿌리를 둔 창작활동의 내용은 살아 움직이는 전통 자체이기도 하다. 때문에 그 현장을 기록하고 보존하여 활용하는 일은 우리 민족의 악가무를 포괄하는 ‘음악 전통’에 대한 통찰과 재창조의 원천이 된다. 또한 시공을 초월한 문화향수의 방편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 산업 분야 활성화의 근간이 된다. 나아가 요즘 K-POP이나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 인기를 감안한다면, 국악원이 수집·보유한 기록물은 우리의 전통을 세계 시장에서 선보일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이자 공공의 문화자산이기도 하다.

## 유일자원의 안정적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국악아카이브

국립국악원이 추진하는 공연·교육·연구 활동 등 사업의 부수적 결과물로 매년 3,000점 이상의 기록물이 생산되면서\* 누적된 자료의 수량은 점점 증가해 왔다. 국악원 내부나 민간, 그리고 국외 한국학 연구·교육 분야 및 영화나 음반 등 문화 산업 분야에서의 수요 역시 마찬가지로 추이였다. 또한 민간의 소장자들이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활용할 기관에 소장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으나, 이를 충족할 만한 인프라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안팎의 사정 가운데 2007년 하반기부터 국악아카이브 구축을 준비하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1년까지 국악아카이브 구축·운영을 위한 기본 방향과 방법을 설정하고 인적 자원 및 인프라 조성, 운영 근거 마련, 구축 전략 수립,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구축 등 아카이브 관리·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민간 및 국외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의 조사와 수집, 보유 자료의 저작권 조사와 기술,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왔다.

## 국악아카이브 운영 현황

국악아카이브는 6명의 운영 인력과 6개의 공간(사무실, 변환실, 정리실, 보존실 2개소, 전산장비실, 총 314㎡)을 확보하고 있다. 국악원 내부에서 발간하는 공표자료의 원본소스나 자체 생산·수집한 비공표 기록물은 국립국악원 ‘자료 관리 규정’과 ‘저작물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저작권 계약서와 함께 아카이브로 이관된다. 물론 외부 자료의 수집 활동은 국악아카이브가 주축이 된다. 이관·수증·구입·제작 등의 방법으로 보유한 국악아카이브 소장 자료는 국악원 내 6개의 컬렉션과 민간 소장자 13개 컬렉션을 포함하여 2012년 1월 현재 16만여 점에 달한다.

### 〈국악아카이브 보유자료 현황〉

구 분	계	동영상	음향	이미지	텍스트	복합	기타
전체 수량	163,240점	2,378	6,260	141,745	7,351	1,531	3,975
디지털자료 수량 (비율)	28,798점 (17.6%)	2,195 (92.3%)	3,481 (55.6%)	23,107 (16.3%)	15 (0.2%)	—	—
디지털화 대상 수량	134,442점	183	2,779	118,638	7,336	1,531	3,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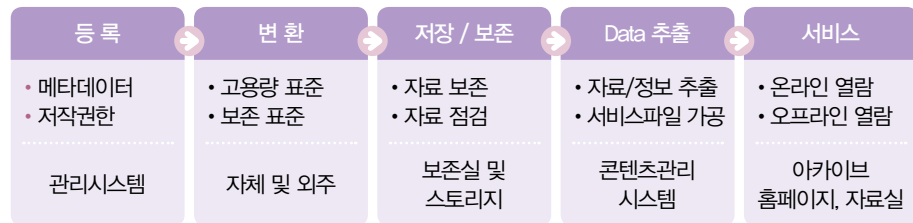
※ 민간 소장자 및 국외 기관의 기증 자료 총 27,822점 포함

아카이브 보유 기록물은 2011년 구축한 ‘디지털국악아카이브시스템’을 통해 등록→저장→DB추출→서비스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등록 과정에서는 국악아카이브에서 제정한 ‘자료기술지침’과 ‘변환·편집·배가 매뉴얼’을 참조하여 메타데이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제출되는 문서 및 발간물 제외.



터를 기술한다. 또한 아날로그 자료를 변환한 디지털 콘텐츠를 스토리지와 라이브러리 백업장치, 소산 테이프로 3중 백업하여 보관한다. 이후 구축된 메타데이터와 변환된 파일 중 공개 가능한 자료는 아카이브시스템 내부의 카탈로거와 트랜스코더를 통해 서비스 콘텐츠를 생성하고 국악아카이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아카이빙 절차 및 도구〉

2012년 국악아카이브는 온라인 서비스 확대, 디지털 자료 보존 강화, 미편집 기록물의 정리와 국외에서 소장하고 있는 1900년대 전반기의 음향자료 수집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악아카이브 홈페이지는 올 4월 문을 열 예정이며, 국악콘텐츠를 접하고자 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악원의 동영상과 음향 자료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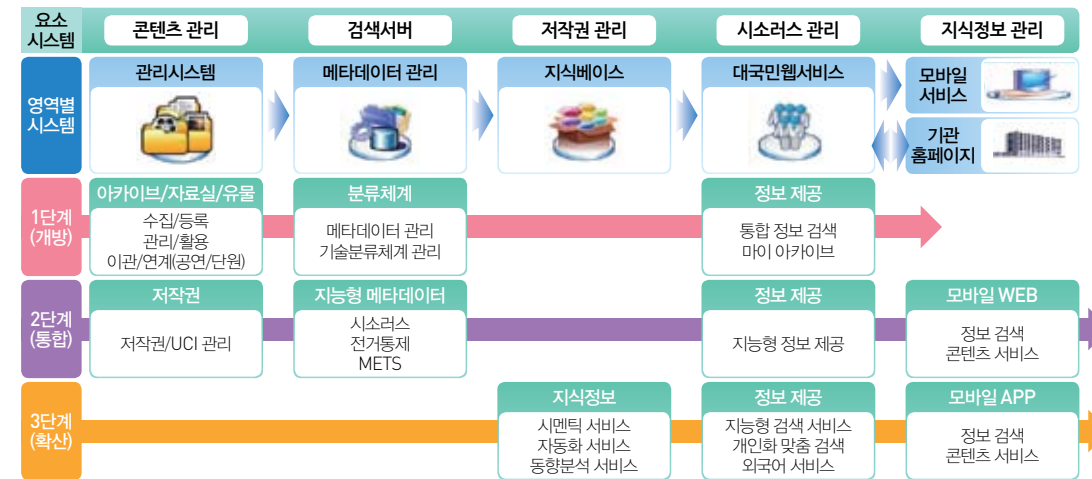
### 국악아카이브의 고민거리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역시 만만치 않다. 아카이브 내부에 산재한 문제와 현안뿐만 아니라, 민간이나 국외에 소장된 중요 기록물의 적극적 아카이빙에 대한 시급성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수록 정보 없이 목록만 존재하거나 그나마 목록조차 없는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고, 현재 17% 정도에 그치고 있는 디지털화를 향상하여 원본 자료의 보존과 활용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접해 있다. 또한 디지털 자료의 장기 보존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웹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방법을 개발하고 품질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민간과 국외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의 훼손이 심해서 이에 대한 보존과 활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자료들은 관리 상태가 열악하다.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과 설비가 선진적인 미국의 모 대학을 통해 작년에 수집한 자료의 상태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더 큰 문제는 1960년대 멀티미디어 자료가 국악 관련 기록을 영상화하거나 음반화한 초기의 것이거나, 민간의 음악 문화를 채록한 기록물들로 그 희소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악아카이브 보유 자료의 70.1%인 11만 4천여 점이 민간과 국외에서 수집한 것들이다. 이 자료들은 국악아카이브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이듬해인 2009년부터 3년간 대부분 기증을 통해 수집한 것이고, 향후 수집해야 할 대상이 50만 점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그 시급성과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디지털국악아카이브 단계별 추진 방향〉

### 공공의 문화콘텐츠를 모두의 자산으로

국악아카이브는 중요 국악 자원을 수집하여 체계적·안정적으로 보존하고 국내외 서비스를 확대하여 ‘세계 수준의 전문 국악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디지털국악아카이브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집 자료와 추진 인력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고품질의 콘텐츠 서비스 환경을 마련하고 민간 소장자 및 국악 관련 아카이브 간의 상호 연계 구축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악아카이브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공감과 물적 지원 역시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수집 자료의 전문화’는 창작국악을 포함한 전통음악 전 분야는 물론, 문화적·철학적 배경이 되는 연계 분야까지 수집 자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를 성취하기 위한 시책과 방법의 확산을 의미한다. 민간과 국외의 중요 자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기탁 제도를 적극 활용한 보존, 목록화 및 디지털 변환 지원을 통한 부분적 활용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한편으로는 수집·보존·관리·변환·활용 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수집된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술하며, 최신 디지털기술을 분석·적용하고, 안정적인 자료 관리와 보존을 수행할 수 있는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각 업무 영역에서 보다 세분화된 실행 전략과 기술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그간 축

적된 성과를 토대로 국악아카이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변화하는 웹환경에서 국악 콘텐츠를 개방하고, 확산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과제다. 최근 「지식재산 기본법」에 근거,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자 많은 정책과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보유 정보의 활용을 위한 개방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저작권 또는 이용 권리를 확보하여 공개할 수 있는 콘텐츠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악 데이터 사전이나 색인, 연계정보 등을 활용한 지능형 서비스 시행으로 그 품질이나 대상과 구조를 확산하고, 나아가 다국어 서비스까지 그 영역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국악아카이브의 자취를 돌아보고, 내일을 계획하는 마음이 가볍지는 않다. 산적한 문제, 그리고 나아가야 할 목표가 그 동안의 성과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크기와 무게를 지녔기 때문이다. 하지만 힘을 낸다. 모든 사람이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국악을 만나고 그 속에서 우리 음악 문화의 풍요로움과 정신을 만나는 작은 창을 마련하는 것이 국악아카이브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히 ‘공공의 문화콘텐츠를 모두의 자산으로’라는 미래를 꿈꾼다.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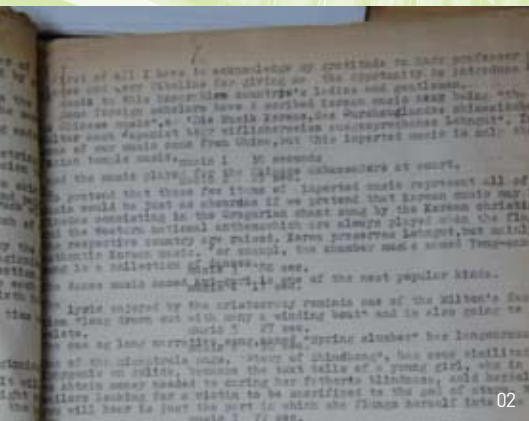
#### 필자소개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악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국립국악원에 입사하여 2008년부터 국악아카이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02 故 이해구 박사 기증 원고(1960년대)

03 최길성 기증 8mm영화필름(1966년)

※ 1960년대 국악자료 동영상은 일제강점기 전통 음악의 존폐를 심의하기 위해 조선 궁중의 아악을 조사했던 다나베 히사오(田邊尙雄)의 기록을 제외하면, 기록영상으로서는 초기의 기록에 해당한다.



03







01

01 민속아카이브 아카이빙실  
02 민속아카이브 자료열람대

## 아카이브와 민속 아카이브, 민속박물관

글 | 김시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추진단 전시자료과장)

### ●●● 민속아카이브의 필요성과 역할

민속박물관에 있는 민속아카이브, 어찌 보면 중복되는 것처럼 보인다. 민속박물관에는 이미 ‘유물’이라는 형태로 수많은 자료를 보관하면서 이의 전시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아카이브가 필요 없어 보인다. 그리고 개별 유물의 데이터베이스에는 기본적인 사진은 물론 도록에 실린 사진까지도 등록하여 관리 및 서비스하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에 별도의 전문 아카이브인 민속아카이브가 왜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아카이브가 공공기록물이라는 법률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학문적인 전문화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오해에서 비롯된다. 즉, 아카이브 자료와 박물관의 유물 자료를 혼동하면서 나온 현상이다. 박물관이 전시와 연구를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더라도 그 모두를 보존할 수는 없다. 박물관의 유물로 등록해야 하는 자료와 단순히 전시와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의 유물과 아카이브자료는 성격 면에서 분명히 다르다.

박물관 유물과 아카이브 자료의 차이는 전시 여부에 달려 있다. 물론 아카이브의 전시 기능을 간과할 수는 없다. 박물관의 경우 전시를 위한 유물의 복제는 가능하지만 이를 유물로 수집하여 보존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민속아카이브는 정보의 완결성을 위해 복제 및 복사한 자료도 원본 이상으로 중요시 되어 수집 및 보존할 가치를 지닌다. 이는 박물관

민속박물관과 민속아카이브는  
필요충분조건 관계에 있다.  
이용자들은 유물 중심의 박물관에서 이제는  
유물과 멀티미디어, 전문도서를 함께 갖춘  
기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속아카이브가 민속박물관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02

관 유물이 유일성이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중요시한다면 아카이브 자료는 정보적 가치를 더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무형의 자료를 동시에 수집 관리하는 것이 아카이브이기 때문에 박물관의 유물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흔히 박물관이라고 하면 자료의 수집·보존·전시·교육·연구라는 5대 기능을 떠올린다. 자료의 수집과 보존이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박물관의 활동이라면, 전시와 교육은 수집된 자료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는 이러한 활동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없어서는 안 될 박물관의 기능이다. 바로 이 연구 기능을 위해 아카이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시와 교육을 위해서도 아카이브 자료가 쓰인다.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 지금까지 ‘민속사전 편찬’, ‘지역민속조사’ 등 수 없이 많은 연구업적을 출판하였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는 박물관의 유물 못지않은 중요한 자료들이다. 민속아카이브 구축 이전에는 이러한 자료들이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용에 애로가 많았다.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아카이브는 이러한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구축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아카이브는 민속학 관련 정보센터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구축되었다. 관내의 다양한 자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은 물론 민속학 관련 자료를 집대성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구축되었다. 이는 박물관이 유물의 소개와 전시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미디어 자료를 확보하여 유물의 보조설명 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민속학 연구를 위한 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속박물관과 민속아카이브는 필요충분조건 관계에 있다. 이용자들은 유물 중심의 박물관에서 이제는 유물과 멀티미디어, 전문도서를 함께 갖춘 기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속아카이브가 민속박물관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의 특징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한 권, 한 장, 한 점

한 권, 한 장, 한 점이 모여서

민속아카이브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기록을 모으고, 역사를 이으며,

사람과 사람들을 잇는 공간이 됩니다.

이 글귀의 바탕에는 무한한 상자들이 이어지는 조형을 그렸다. 이는 자료를 담은 상자들이 쌓이고, 이어지듯 자료가 모이고 연결되는 형상을 표현한 것이다.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의 로고 역시 자료의 연결고리를 강조하고 있다. 로고는 부챗살을 도상화 하였고, 그 부챗살이 한 곳으로 모이는 곳에 구멍을 뚫었다. 부챗살처럼 여러 방면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구멍을 통과하여 고리를 이루어 정보로써의 효용성을 극대화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로고의 색깔은 물론 공간의 바닥 색까지 온통 꽃분홍색이다. 이는 미적인 것도 있지만 도서와 자료의 딱딱함을 풀기 위한 최면이다.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아카이브가 공식적으로 문을 연 것은 2007년 5월 8일 어버이날이다. 한 권, 한 장, 한 점의 자료가 모여서 거대한 민속아카이브를 만들고, 이것이 아시아 최대의 민속정보센터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취지였다. 민속아카이브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전문가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시나리오 없는 토론을 하기도 하였으며, 다양한 자료를 찾아 분석하는 등 전문적으로 아카이브를 연구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한 준비가 오늘의 민속아카이브로 성장하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의 대부분 아카이브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는 반면 민속아카이브는 국립민속박물관의 활동에 시너지효과를 주기 위해 구축하였다. 그래서 첫째 민속아카이브는 이용자들이 One-stop service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하게 되면 생활문화에 대한 궁금증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생활문화와 관련된 유물

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하여 전시, 혹은 유물열람 서비스를 통해 실물을 관찰하고, 해당 유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아카이브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 보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민속아카이브에서 개가식으로 운영하는 민속학 전문도서실의 서적을 활용하여 좀 더 깊이 있는 전문적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이것이 민속아카이브가 구현하려는 One-stop service의 개념이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가 일사천리로 구현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둘째는 원로 민속학자의 민속학 연구가 지속되는 아카이브의 구현이다. 원로 민속학자들의 소장도서, 연구결과물, 사진 등이 아카이브의 자료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원로 민속학자의 연구 경향을 이어받아 지속시키는 것은 물론 연장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으로 등록된 다양한 고문서 자료, 사진자료, 중요 기록자료, 전적, 지도 등의 자료를 디지털 복제를 하여 아카이브 자료화한다는 것이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소장품 개념은 이미 근현대 자료의 수집에까지 확장되어 있고, 민속박물관의 활동을 위한 박물관 자료의 개념은 그만큼 확대되어 있다. 그래서 국립민속박물관의 소장품 중에는 사진은 물론 아카이브성 자료가 그만큼 많다. 이러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아카이브자료로 활용하여 활용성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아카이브는 크게 3가지 분야의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아시아 최대의 민속학 전문도서를 갖춘 도서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서관 시스템이 발달되어 대부분의 아카이브가 도서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립민속박물관의 도서실은 일반도서가 아니라 민속박물관의 역할에 맞는 도서를 수집 관리하고 있고, 몇 차례에 걸친 원로 민속학자의 도서 기증을 통해 불과 7만 6천여 권의 장서지만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민속학 전문도서실의 위상에 올라 있다. 고(故)장철수 선생님과 임동권 선생님의 민속학 관련 자료는 민속학 연구의 지축은 물론 전문도서실의 위상을 세운 대표적 자료가 되고 있다. 현재 자료실은 별도 규정을 만들어 좀 더 체계화된 관리와 운영을 하도록 개정하였다.

둘은 다양한 매체의 민속학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이다. 각

종 조사 연구 사업을 통해 수집한 사진자료, 동영상자료, 음원자료, 각종 기록문서 등 실로 다양한 자료 40만여 건을 확보하고 있고, 계속 증가되고 있다. 아시아 최대의 민속학정보센터를 위해 100만 건 이상의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은 정보화 박물관의 운영이다. 이미 국립민속박물관의 홈페이지는 인정받은 잘된 홈페이지로 정평이 나 있다. 민속아카이브의 구성요소에 전산이 포함된다는 것은 민속아카이브의 운영 방법의 기본이 디지털아카이브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박물관 홈페이지가 일부 자료를 서비스하고, 박물관 홍보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민속아카이브가 구상하는 정보화 박물관은 박물관의 정보화는 물론 민속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과 아카이브자료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포털 서비스라는 것이다.

## 민속아카이브의 자료수집과 관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박물관 활동을 위한 유물자료는 물론 아카이브의 자료 역시 규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민속아카이브 운영규정의 자료수집 조항을 보자.

**제5조 (아카이브자료 수집)** ①박물관의 전시활용, 직원들의 연구능력 제고 및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아카이브자료를 수집한다. ②아카이브자료의 수집은 국내외 생활문화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구입·수증·이관·자체 발간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③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을 위해 아카이브자료수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구성과 기능은 별도로 정한다. ④박물관 직원은 업무상 또는 기타 사유로 취득한 자료 중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카이브자료를 유물과학과에 제출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아카이브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8조 (아카이브자료 수증)** ①국내외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생활문화 관련 아카이브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②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증자, 기증단체 예우를 위해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소장경위, 출처, 소유권 등이 기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하거나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은 아카이브자료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④아카이브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가 기증의사를 밝힐 경우 아카이브자료수집 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를 통해 수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아카이브자료 이관)** ①각과는 자체 생산한 자료, 전시 관련 문화상품, 포스터, 교육 관련 자료 등과 함께 원본파일도 유물과학과로 납본·이관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에 기증된 자료 중 아카이브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는 유물과학과로 이관한다.



03 민속아카이브 홈페이지 메인 화면



규정이라는 형식으로 인해 간단해 보이지만 민속아카이브가 수집해야 할 자료는 실로 다양하고 방대하다. 민속아카이브의 수집 방법은 첫째, 자체 생산이다. 각종 전시에서 발생하는 자료, 조사연구의 현지에서 직접 촬영한 자료 등이 이에 속한다. 지역민속조사, 장례의궤조사, 계기별 세시풍속 조사 등을 통해 현지에서 직접 촬영하거나 수집한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가 이에 속한다. 이와 함께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행하는 다양한 계기별 행사에서 생산되는 자료들 역시 민속아카이브의 자료로 등록된다. 둘째, 기증 및 이관이다.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민속박물관의 역할과 관련되는 자료를 수증하거나 이관 받음으로써 아카이브자료를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셋째, 구입이다. 민속아카이브 운영을 위해, 민속학 연구와 전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직접 구입하는 방법이다.

자료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자료를 수집할 경우 자료의 가치는 물론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민속아카이브에서 자료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아카이브자료수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수집위원회를 두어 자료수집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정도로 민속아카이브가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증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기증 자료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60년 전에 촬영된 영상 속의 인물을 찾아내어 인터뷰도 하고,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 기증된

04 · 05 향운향습 기능 캡슐형 서고



자료의 현장을 찾아가 다시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기증 자료의 활용성과 가치를 증진시키는 작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거침으로써 아카이브 자료가 물량적으로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효용성도 증대시키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아카이브에는 상당량의 아날로그 자료가 있다. 특히, 아날로그 방식의 비디오 · 오디오 테이프 · 레코드판 · 슬라이드 필름 · 네가 필름 · 인화된 사진 · CD · DVD · 귀중한 도서 등 실로 다양한 매체의 아날로그 자료들이 있다. 이들 자료는 아날로그 형태이기 때문에 온 · 습도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열화 속도도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영구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혹자는 말 할 것이다. 디지털화 하면 그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러나 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화 하더라도 원래의 형태 그 자체가 바로 자료로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원본 그 자체의 보관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아카이브에는 아카이브 자료를 위한 캡슐 형태의 창고가 별도로 있다. 박물관 소장품을 보관하는 수장고와는 또 다른 개념이다. 즉, 다양한 매체에 적당한 20도 미만, 습도 50%미만으로 하는 특수 창고에 이들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아날로그 자료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인화를 하거나 스캔을 받는 일, CD나 DVD, 테이프 등을 반복적으로 돌려보는 일은 금물이다. 물론 자기 테이프의 경우 서로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한 번씩 돌려주는 일이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그 외는 가능한 한 건드리지 않는 것이 보존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원본 보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디지털화이다.

디지털화는 관리,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작업이다. 디지털화는 종이로 된 기록을 디지털 매체에 기록하는 정도가 아니다.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해서는 자료의 수집에서부터 분류 · 가공 · 분석 등 새로운 차원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속아카이브에서는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 서비스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 중에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 이는 민속아카이브의 운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 해 수천 건 이상 늘어나는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인력 확보는 물론 예산 역시 쉽지 않다. 그래서 완벽한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현, 아카이브 자료 관리와 이용서비스의 표준화 등에 많은 시일이 걸리고 있지만 멈추지는 않는다. 더디지만 아날로그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IN**

#### ● 필자소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1998년부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7년에는 국내 최초 민속아카이브를 개소하였다. 안동대학교에서 민속학을 전공하고, 고려대학교에서 「한국 유교식 상례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생의례, 영상아카이브, 사진민속학 등을 공부하고 있다. 「삼년상」, 「김수환 추기경 선종」, 「종교와 그림」 등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이 있다.



# 건축 아카이브의 개념과 운영방안

글 | 전봉희(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01

## ●●● 건축아카이브 개념

건축아카이브는 건축박물관, 건축도서관과 함께 건축의 기록을 보존하여 미래의 건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3대 기록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건축아카이브는 현재와 미래의 건축가와 건축학자들이 그들의 작업을 위하여 접근해야하는 원천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건축이 단순히 최종적인 결과물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건축아카이브는 수집 대상 자료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건축가 중심의 아카이브와 건축물이나 도시건축환경 중심의 아카이브로 구분할 수 있다.

건축가 아카이브는 한 건축가가 일정 기간 활동하였던 모든 기록 즉, 최종적인 건축도면과 모형 이외에도 초기의 스케치와 디자인의 발달 과정에서 생긴 중간 성과물, 건축주와의 면담 기록, 행정 처리와 관련된 서류, 언론에 소개된 내용, 그 외에 개인의 생애사적 기록까지 포괄하게 된다. 이는 창조적인 개인으로서 건축가의 일상생활 모두가 그의 작품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건축가 아카이브는 다른 아카이브와 비교할 때 수집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규격과 형식이 일정하지 않아서 계획과 운영에 특별한 고려가 요구된다.

건축물 아카이브나 도시건축 아카이브는 단위 건축물이나 건축적 사건, 일정한 범주로 묶을 수 있는 건축물 집단 또는 특정한 지역의 도시건축환경 일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에 속하는 정보를 수집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개인이나 조직, 기관을 단위로 하는 전통적인 아카이브의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써, 계속적으로 변

- 01 보수를 기다리고 있는 건축도면들. 건축도면이 건축아카이브에 소장되기 위해서는 중성화와 평탄화 등의 보존처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02 원헨의 바이에른건축아카이브에 소장되어 있는 문짚들 - 17세기의 것부터 각 시기별로 소장되어 있다.  
03 프랑크푸르트 건축박물관(DAM)에 소장되어 있는 건축모형들



02



03

화하는 도시건축 환경 자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적 실체로 인식하고 그의 변화 과정을 총합적으로 기록할 필요성 때문에 생겨난 새로운 개념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자료는 구체적인 건축물과 건축부재 등의 실물 자료, 건축 설계나 도시계획과 같이 공간적 성격을 띤 자료 외에도 이용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통계와 생활 실태를 담은 비공간적 성격의 것들도 포함된다.

다만, 전체이전 부분이전 건축물의 실물을 수집하는 수준으로 확장되면서 건축물 아카이브는 건축박물관과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더욱이 대부분의 건축박물관은 건축도면과 건축가의 기타 자료들을 함께 수집하고 있으며, 또 대부분의 건축아카이브 역시 자체 내에 전시실을 두어 중요한 도면과 모형 등을 전시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네덜란드 건축협회(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 NAI)의 경우를 보면, 건축아카이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시를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다 대중 지향적인 건축박물관의 속성도 겸하고 있다. 또 뉴욕현대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 MOMA)의 국제주의 양식(International Style)전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기획전시를 통하여 새로운 건축적 담론을 생성하기도 하고, 또한 야외건축박물관의 예와 같이 건축물 자체를 전시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는 등 다양한 존재 양상을 갖는다. 세계박람회와 야외박물관은 건축물의 실물을 전시, 소장한다는 면에서 건축박물관의 초기 형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아카이브적 속성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아카이브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기록물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지어지며, 건축도서관이나 건축박물관은 건축과 관련한 학술적 성과물의 수집과 열람에 좀 더 중점을 두는 차이가 있다. 또 아카이브가 수집과 정리, 보관을 통하여 후대의 연구와 창작에 봉사하는 것을 중요시 하는데 비하여, 박물관과 도서관은 전시와 열람을 통한 당대의 교육과 교류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그러나 이들은 작업의 성격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서관 특히 대학도서관은 아카이브를 그 내부에 운영하고 있고, 또 많은 수의 박물관과 아카이브 역시 함께 운영되고 있다.



## 건축아카이브의 탄생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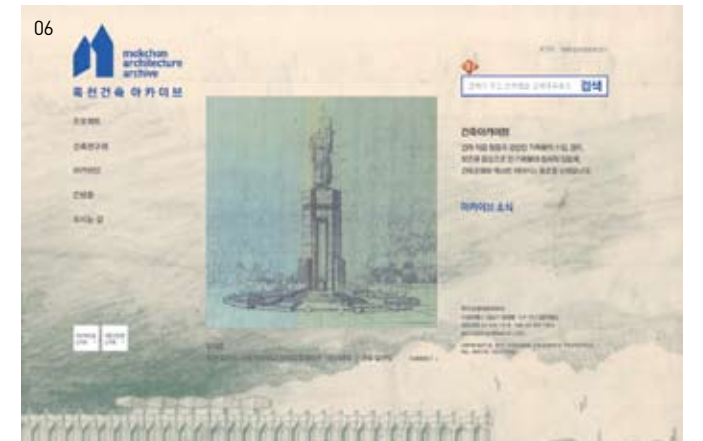
원래 아카이브(archive)는 공공문서, 시청 혹은 집행관의 관사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아케이온(arkheion)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기원은 중요한 행정 문서의 보존소에서 비롯하였다. 고대의 아카이브는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중국의 당안관(檔案館)에서 이미 선례를 찾을 수 있지만, 법령에 의한 기관의 설립과 대중적 접근을 지원하는 근대 아카이브의 제도가 확립된 것은 프랑스 혁명 기간 중인 1789년에 설립된 프랑스 국립 아카이브(Archives nationales)에서 시작하였다.

좁은 의미에서의 건축아카이브의 역사는 정부 기록관의 건축행정 도서부를 기원으로도 삼을 수 있다. 그것은 건축적 개념을 구상하고 발전시키고, 소통하는 수단으로써 건축가가 그린 건축도면은 건축아카이브의 가장 기본적인 수집대상이 된다. 특히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도면의 경우, 자료의 형식과 성격이 전통적인 정부 문서와 유사하고 수집과 보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근대에 등장한 대중적 건축 학교에서는 재학생들이 교육 기간 중에 행한 일련의 성과물을 보관하였고,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그 대학과 연고가 있는 건축가들의 작품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건축가의 직접적인 생산품을 보존하며 그것이 다음 세대의 건축가를 교육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건축학교의 건축 작품 소장은 본격적인 건축아카이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렇게 탄생한 건축아카이브는 현재 정부기관 이외에도 대학, 종교기관과 공공협회, 나아가 개인이나 기업 등으로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확산되고 있으며, 그와 함께 수집 자료 역시 전통적인 건축도면에 한정되지 않고 기관과 개인의 각종 역사 기록물, 설계 과정에서의 다양한 생산물, 연구자료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건축아카이브는 미국 하바드대학의 프랜시스 로브 도서관 그로피우스 컬렉션(Gropius Collection)과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건축 아카이브의 특별 컬렉션인 루이스 칸 컬렉션(Louis Kahn Collection) 등과 같이 그 학교에 교수나 학생으로 관계하였던 유명 건축가의 컬렉션을 보존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와, 프랑스 20세기 건축기록소(Centre d'Archives d'architecture du XXe siècle)나 네덜란드건축협회(NAI), 영국의 왕립건축협회(RIBA)와 같이 국가 단위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는 유럽의 건축아카이브에서도 국가와 기관의 관계 설정 방식은 기관마다 달라서 한마디로 규정하기 힘들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루이스 칸 컬렉션의 경우 이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근무하면서 활발한 건축 활동을 한 루이스 칸의 유산을 1978년 펜실베이니아 주정부가 구입하여 이 대학에 영구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반면, 프랑스 20세기건축기록소의 경우, 국립아카이브에서 건축기록문서를 대여 받고 프랑스 건축협회(IFA)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 기구의 성격을 띤다. 2004년에는 법령에 의해, 프랑스건축협회, 문화유산박물관, 그리고 샤이요(Chaillot) 학교 등의 문



04 네덜란드건축협회(NAI)의 건축도면 수장고  
05 국가기록원이 구축한 '일제시기 건축도면 아카이브'  
06 한국 1세대 건축가를 대상으로 한 '목천건축 아카이브'



화유산의 보존·연구·교육 등에 관련된 3개 기관이 건축 및 문화유산 센터(Cité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로 통합하게 됨으로써, 20세기건축기록소는 건축주물모형(Cast Model)을 주로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박물관과 통합되어 중세 이후의 모든 시기에 걸친 건축유산에 대한 종합적인 아카이브로 발전하게 되었다. 1993년 설립된 네덜란드건축협회(NAI)의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독자적으로 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있는 가장 성공적인 국가 차원의 건축 아카이브의 사례로 꼽힌다. 네덜란드의 건축가를 자료 수집의 대상으로 하며, 자료보관용 선반의 길이가 18km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하며, 사실상 1800년대 이래의 유명한 네덜란드 건축가의 컬렉션을 모두 소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해외에서는 규모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의 건축아카이브가 운영되고 있어,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80여 곳의 건축아카이브가 있을 정도이다. 결국 건축아카이브는 일반적인 아카이브에 비하여 자료의 출처가 많은 곳에 산재해 있고 그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수집 대상과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와 구성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아카이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보유량보다 정보의 질에 있다.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기준으로는 미적인 가치, 기록물이 다루는 영역, 보존 상태, 희귀성, 기록된 대상 또는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수집한 사람의 중요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건축아카이브의 상황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사립의 건축아카이브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2011년 6월 '목천건축 아카이브'가 개소하여 이제 은퇴기에 접어든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들에 대한 구술 채록작업과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도면·도구·기록물 등을 수집하고 있다. 또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도 건축아카이브의 구축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다. 현대미술관은 작년 3월 타계한 건축가 정기용의 많은 스케치와 일지, 사진과 동영상 등의 유품을 기증받는 것을 계기로 하였고, 서울역사박물관 역시 작고한 건축가 김정수와 정인국의 유품을 기증받은 것을 계기로 기존 부서 내에 건축아카이브의 담당을 정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축공간도시연구소의 아카이브 관련 작업은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 건립예정인 (가칭)건축도시박물관의 개관과 향후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 건축아카이브의 가장 기본적인 대상 범위가 되는 도면아카이브와 관련해서는, 이미 2008년 이래 국가기록원에서는 '일제시기 건축도면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생산된 근대 건축도면과 그에 대한 해제를 해제집과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근대 자료 집합소인 규장각과 장서각이 소장하고 있는 도면 컬렉션에 대해서도 각각 그 해제작업이 완료되어 해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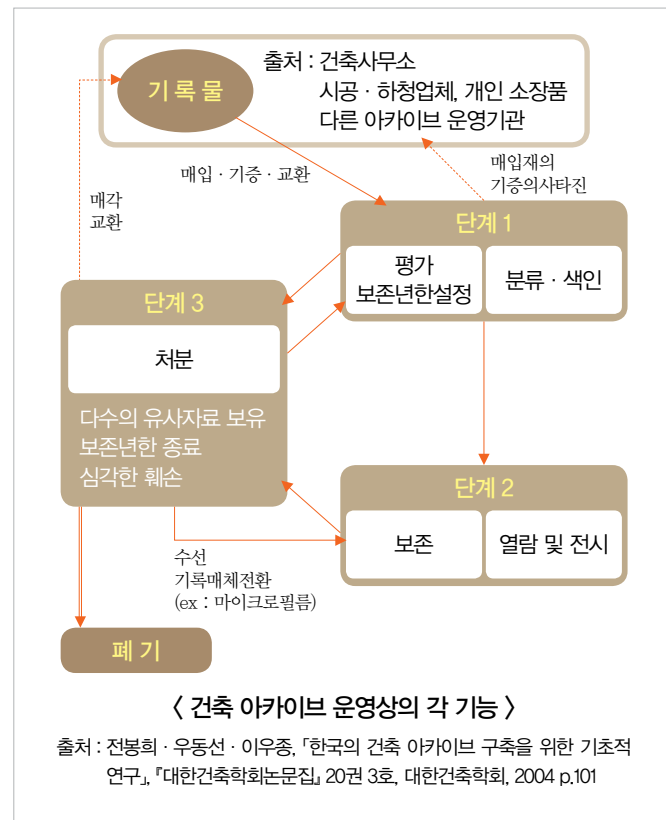


의 출간과 도면자료에 대한 온라인 열람을 허용함으로써 도면 아카이브의 가장 이른 선례가 되고 있다. 나아가, 건축사무소가 자신들의 작업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나 각급의 행정기관이 행정서류로서 보관하고 있는 인허가 관련 건축서류 등은 앞으로 여러 형식의 아카이브 구축에 일차 수집대상이 될 것이다.

### ●● 건축아카이브의 구축과 운영

건축 관련 자료의 소장처는 기본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소유자 측(소비자 측)과 설계자/시공자 측(생산자 측)으로 이분할 수 있다. 건축 관련 자료의 출처로서 대표적인 곳으로는 정부 또는 그 외의 각종 조직들, 건축 사무소, 건설회사 혹은 구조사무실 등이 있다. 이러한 자료의 '수집(acquisition)'은 건축아카이브의 구성에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건축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마련할 수 있는 자원, 관리 인력, 수장 공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집 대상의 선정에는 명확한 기준이 요구된다. 수집의 주된 원칙은 명확한 목적성, 완벽한 소장품 체계의 수립, 과학적 계획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자료가 발생하는 시점은, 건물의 설계가 완성되었을 때, 건축인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건축물이 완공되었을 때, 건축물의 수명이 다하여 철거될 때, 건축가가 은퇴 혹은 사망하여 소장하고 있던 도면을 처리할 때가 된다. 최종 도면의 경우 소장처가 복수로 있고, 따라서 구하기도 상대적으로 쉽지만 최종 설계안 완성 전에 생산되는 다양한 건축도면과 서류, 스케치, 모형 등은 건축가에게 온전히 귀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건축아카이브의 가장 큰 자료 수집 대상은 건축가가 된다.

이렇게 수집된 건축 관련 기록물을 원래 작성된 목적과 성격에 따라 종류를 나눈다면 크게 프로젝트 관련 자료철, 사진이나 모델 등의 시각적 기록물, 그 외 사원 명부나 장부, 일반 서신 등 사무 관련 자료철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기록물을 수집한 후에는 이들의 출처, 다루는 내용, 재질, 크기, 현재 상태, 현재 보관 위치 등을 '조사(survey)'하여 기록해야 하며, 관리와 이들 자료를 외부의 연구자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한 색인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기록물의 '정리(arrangement)' 방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



선 출처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이는 특정 사안에 대한 기록물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조직되어 있도록 하는 데에 유용한 방식이다. 출처에 따라 나눈 후 다시 프로젝트별, 용도별, 시간순 등으로 분류를 세분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개개의 건축 관련 기록물은 유용한 정보의 보고가 될 수 있지만 어떤 건물의 특정 부분, 어떤 프로젝트의 일부 과정만을 반영할 뿐이라는 것이다. 건물과 프로젝트 진행의 전반에 걸쳐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특정시대 혹은 특정 분야의 건축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위해서는, 특정 주제의 건축 관련 기록물들이 일정한 체계와 기준에 따라 수집·정리되고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된 기록물을 보존하고 처분하기 위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건축 아카이브의 기록물들은 부서지기 쉬운 재료로 구성된 것들이 많다. 또 각 기록물은 재료에 따라서 '보존(conservation)'에 가장 알맞은 환경 조건이 제각각이다. 적정한 온도·습도 조절, 공기 정화 시설을 갖춘 보관실은 건축 아카이브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설비이며, 건

축아카이브의 운영 목적에 맞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조건의 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한편, 모든 자료의 보존은 보유 기록물이 늘어날수록 아카이브 운영기관에 상당한 부담을 안기게 되는 요소로, 때로는 기록물 중 일부를 폐기·매각·교환하여 처분(disposal)하는 경우가 생긴다. 자료의 가치에 따라, 아카이브의 목적에 따라, 유사 자료의 수량에 따라 처분이 결정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자료의 역사적, 과학적 가치가 반드시 현재의 시각으로만 판단될 문제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은 임직원의 독단이 아닌 운영 주체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그 판단에는 외부인을 포함하는 복수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 기증자나 구입에 기여한 사람의 의견을 가능한 한 참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료의 공개 방식이다. 건축아카이브는 일반적인 아카이브에 비하여 자료의 출처가 많은 곳에 산재해 있고 그 형태가 다양하다. 이에 더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자료의 양과 이에 따른 수장과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처음부터 디지털로 만들어진 자료와 디지털로 변환한 자료의 두 가지별로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 특히 건축아카이브의 경우 기본적인 수집 대상인 건축도면에 최근에는 대부분 디지털로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하다. 디지털로 변환한 자료의 경우는 원천자료의 완전성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디지털로 생성된 자료는 원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원천자료가 디지털로 만들어진 경우라도 반드시 출력 등의 방식으로 실물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up>IN</sup>

#### ● 필자소개

1992년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97년부터 같은 대학에서 건축사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과 동아시아의 건축사가 중심 연구 영역이며, 건축아카이브와 관련해서는 국가기록원 소장의 일제시기 건축도면 아카이브 구축작업과 규장각 소장 도면 컬렉션에 대한 해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재청에서 진행하는 건축부채 아카이브의 개설과 목천건축아카이브의 원로 건축가 구술채록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 지역공동체와 사진 아카이브

글 | 이경민 (사진아카이브연구소 대표)

### ●●● 들어가는 글

지난 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사진전 《임응식 - 기록의 예술, 예술의 기록》(덕수궁미술관, 2011. 12. 21 - 2012. 2. 12)을 기획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사진계를 대표해 온 사진가 임응식의 탄생 100주년 작고 10주기를 기념하기 위한 전시였다. 임응식의 활동 시기가 우리나라에 예술사진이 수용되고 정착·발전해 온 역사적 과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기에, 그와 그의 작품을 통해 한국사진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획 방향을 정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그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는 일이었고, 각종 신문이나 잡지, 서적 등에서 그와 관련된 기사들을 면밀히 조사 정리했다. 그런데 자료조사 과정에서 그의 이력을 살피다가 30년 전인 1982년에 사진가로서는 최초로 국립현대미술관에 초대된 사실을 알게 되어, 당시 개인전이 열렸을 때 발행된 포스터와 전시도록 그리고 초대장 등 관련 자료들을 미술관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학예사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일이고, 또 별도의 아카이브 부서 없이 미술자료실에서 도서 중심의 관리를 해오다보니 어떠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행히도 유족에게 관련 자료들이 남아있어 전시에 활용하기는 했지만, 불과 30년 전에 덕수궁미술관에서 열린 전시 관련 자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미술아카이브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전시가 끝난 이후 사진을 비롯한 미술 자료 전반에 걸친 아카이브를 모색한다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올 10월 서울관 개관을 앞두고 과천 본관과 덕

수궁미술관, 청주관 등에 대한 다양한 활용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최고 대표기관을 표방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이 그 위상과 규모에 걸맞은 미술아카이브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인력 확충에 나설 필요가 있다. 특히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가칭)의 기능을 맡게 될 청주관이 단지 예술작품들을 보관하고 보존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그치지 말고, 작가와 작품을 둘러싼 미술 자료들을 폭넓게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그것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전시와 출판 그리고 교육 콘텐츠를 생산하는 명실상부한 국립미술아카이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바란다.<sup>1)</sup>

우리나라에서 사진이 갖는 예술적 위상이 다른 시각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아직까지 시각예술 전반에 걸쳐 미술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최근 기록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지역사와 생활사 연구에 대한 관심 속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사진아카이브의 현황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최근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사진아카이브 실천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 메타미디어로서의 사진과 국내 사진아카이브의 현황

사진 관리의 대상을 예술작품으로 한정할 때,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처럼 종합미술관에서는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사진작품들을 미술품의 하위 장르로서 분류·관리하고 있으며, 사진 전문 미술관이나 화랑에서는 자체 컬렉션한 작품을 대상으로 작가 중심의 DB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진은 예술 내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예술 외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따라서 회화나 조각·판화·만화·영화처럼 특정한 장르나 범주의 하나로 묶을 수 없다. 또한 타매체나 타 분야의 활동들까지도 사진으로 기록되고 보존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매체에 대한 매체’ 즉 메타미디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단적으로 공연아카이브에는 공연사진이, 민속아카이브에는 민속사진이, 건축아카이브에는 건축사진이 중요한 사료로서 자리를 잡고 있으며, 만약 촬영한 대상이 사라진 경우라면 사진은 실물 대상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대체본의 역할까지 수행한다. 따라서 사진아카이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방대한 프로젝트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현실 볼



0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화운동아카이브 사이트 화면

가능한 아카이브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모든 사진을 관리 대상으로 하는 사진아카이브는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 기관에 따라 소장된 사진 자료의 내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아카이브의 대상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사진박물관이나 사진기록보존소, 또는 사진자료관이 존재하지 않으나 국공립기관마다 자체 사업과 활동과 관련된 수많은 사진자료들이 남아있다. 해방 이전에 촬영된 근대사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주로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고적조사사업을 진행하면서 촬영한 고고학 및 인류학 관련 사진과 필름들이 상당수 남아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조선사편수회에서 1920~30년대 우리나라와 일본, 만주 지역에 산재해 있는 사료를 수집 촬영

1) 예술의 전당에 위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의 예술정보원은 국립예술아카이브를 지향하며 2010년 재단법인 국립예술자료원(Korea National Archives of Arts)으로 거듭났으며, 주로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수집 대상이 특정 매체에 한정되어 있고, 각 분야별 전문 아카이비스트 없이 기존의 문헌자료실과 영상음악실 체제를 그대로 인계 운영하고 있어 국립예술아카이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 사진들이 정리되어있다. 또한 독립기념관에는 독립운동 사적지와 전적류 사진 자료, 독립운동 관련 사진, 강제동원 사진 등이 기증과 구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컬렉션 되고 있으며, 국가기록원에서는 최근 민간 사진기록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수집에 나서고 있지만 주요 업무가 주로 정부 각 부처에서 생산되는 행정문서들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이다보니 정부 수립 이후에 촬영된 역대 3부요인 및 역대 장관 인물사진과 대통령 동정 사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sup>2)</sup>

이러한 국공립 기관 외에도 2000년대에 들어와 기록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사진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 방안들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먼저 2002년 ‘역사를 남기지 못한 20세기 한국 민중들의 생활사를 재구성하고자 출범’한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민중의 생활현장으로 들어가 구술자서전, 생활사의 물증, 영상과 문서자료 그리고 문학과 예술작품 등의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으며, 구술자료와 동영상자료 그리고 각종 문서자료 등과 함께 사진자료를 분류 정리하여 민중생활사아카이브를 구축한 바 있다.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향토문화원)와 공동으로 웹기반의 디지털 향토지(郷土誌)인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을 구축해 오고 있다. 여기에도 동영상자료와 음향자료 그리고 도표 및 도면자료와 함께 사진자료가 자체 분류체계에 따라 정리되어 있는데, 개방형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민들이 소유하고 있거나 촬영한 사진들을 자발적으로 올릴 수 있게 했다.

한편 2005년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에서는 1995년부터 수집해온 ‘한국학 관련 서양고서의 원문 DB구축 사업’을 시작하면서, 원문은 물론 서적에 수록된 사진과 삽화를 별도의 사진DB검색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1년 출범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리를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관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2005년 경향신문사에 소장된 사진과 필름 그리고 사업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박용수 필름컬렉션 중에서 47,000여 점을 선별하여 ‘민주화운동사진DB’를 구축, 서비스 하고 있다. 이 DB는 사진기록물에 대한 분류 및 메타데이터와 관련한 관리지침이 부재해 온 상황에서 기록학적인 관리방식에 따라 구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사진아카이브에 대한 하나의 표준을 제시해주었다.<sup>3)</sup>

### ●● 사진아카이브의 새로운 지형 – 지역 사진 아카이빙을 위한 다양한 실천들

앞서 살펴본 국공립 기관과 대학연구기관 중심의 사진아카이브들이 주로 기관의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서 또는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사진아카이브 실천들이 있어 주목



02 ‘문화우리’의 두 번째 도시경관기록보존사업인 ‘2007 cityscape trust 교남, 신월, 철산 도큐먼트’ 전시 포스터

할 필요가 있다.

과거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홍보와 경제효과에 주목하면서 각종 지역사업과 문화행사들을 경쟁적으로 벌여왔다. 그러나 한 지역에서 성공적 사례가 생기면 그것을 모방한 유사행사가 열려 예산낭비는 물론 문화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이 잦았으며, 지역사정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런 행사들이 주로 지역축제 기획사나 관(官)주도로 이루어지면서 정작 지역사회의 주체인 지역민들이 소외되거나 문화 소비자로 전락하여 지역 활성화를 꾀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삶의 공간인 주거지역과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사회의 주체로 거듭나려고 하는 지역민들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지자체와 문화단체들의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진아카이브를 실천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하는데, 먼저 ‘문화우리’(현 내일의 도시)라는 시민단체에서는 재개발로 인해 사라질 운명에 처한 ‘삶터의 모습과 일상의 이미지’를 지역 공동유산으로 기록, 보존하고자 하는 도시경관기록보존사업을 수행해 왔다. 2006년 아현 뉴타운 지구를 시작으로 2007년 교남·신월·철산 지구, 2008년 세운상가와 낙원상가, 2009년 북아현 지구 등을 사진으로 남겼으며, 그 결과물들은 전시와 출판을 통해 지역민과 다시 공유되었다. 이러한 도시 공간에 대한 기록화사업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부산의 도시 모습을 5년마다 촬영하여 부산지역 사진아카이브로 구축하려는 도시기록화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대전시에서도 2011년부터 5년마다 도시의 변화과정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도시경관기록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대전시에서는 대전근대아카이브즈포럼과 함께 대전 지역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2011년부터 ‘대전 근대사아카이브구축 및 활용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사진들을 본격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지자체나 문화단체 차원의 일을 개인이 수행하는 곳도 있는데, 전라북도 진안군의 한 작은 마을에 위치한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가 그곳이다. 2006년 계남리라고 하는 100여 가구 사는 작은 마을에 더 이상 쓰임이 없어져 방치된 정미소를 부분 개조하여 만든 것으로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미소는 한 때 마을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경제적 효용성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해

2) 이경민, 『사진아카이브의 현황과 필요성 고찰』 『제국의 렌즈』 산책자, 2010, 302~310쪽에서 정리

3) 이경민, 『역사기록물로서의 사진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방안』 『천 개의 마을, 천 개의 기억』 아카이브박스, 2011, 175~182쪽에서 정리





03 계남정미소의 개관기념전인 《계남마을 사람들》 전시 리플릿, 2006

있다. 이러한 정미소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계남정미소는 마을 공통의 기억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을 지향하며 마을 주민들의 삶과 함께 하는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특히 개관기념전으로 치러진 《계남마을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의 사진앨범에서 골라낸 기념사진들(주로 결혼사진)로 구성된 전시였으며, 두 번째 기획전인 《마이산에 가다》도 마이산으로 야유회나 소풍을 떠난 마을 사람들의 기념사진을 모은 것이었다. 이들 전시는 지역민들에게 공통의 기억과 경험을 환기하는 자리이자 세대간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고향을 떠난 주민들을 오랜만에 불러들여 노년층만이 남은 작고 외진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계남정미소에서의 이러한 활동은 사진아카이브가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진아카이브 실천들은 모두 기억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억 담론과 기억 연구의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서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사진아카이브연구소에서는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인문주간’(인문학대중화사업)에 참여하여, 〈기억과 윤리적 삶〉(2010)과 〈기억공동체와 인문적 삶〉(2011)을 주제로 지역아카이브의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소개하고 지역간 아카이브를 공유하려는 ‘지역아카이브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두 권의 자료집-『지역아카이브, 민중 스스로의 기억과 삶을 말한다』(아카이브북스, 2010)와 『천 개의 마을, 천 개의 기억』(아카이브북스,

2011)-으로 엮여졌다. 이에 대한 논의와 실천은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기억의 주체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 지역공동체의 아카이브 실천을 통해 공식역사가 강요해 온 공식기억에 대항할 가능성과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진을 매개로한 공통 기억의 지평 위에서 지역민 스스로 자신들의 삶의 장소와 기억을 보존하고 기록하기 위한 노력들이 그래서 소중하다.

### ●●● 나오면서

1876년 개항을 전후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진 사진은 사물을 정확하고 빠르게 기록하는 서구의 편리한 재현도구를 넘어 세상을 보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로 인해 근대 조선인들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상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사진은 우리의 근대적 인식과 그 기원을 살피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기제이자 증거적 사료이다. 그리고 우리의 근대와 더불어 시작된 사진 속에는 근현대사의 숏한 사진과 모습들이 담겨 있으며, 우리들의 삶 자체가 사진(둘사진)으로 시작해서 사진(영정사



04 '기억공동체와 인문적 삶-지역아카이브 네트워크 프로젝트' 종합자료집

진)으로 마감할 정도로 통과의례의 모든 과정들이 사진을 통해 기념되고 기억되어 왔다. 개항이후 우리가 압축근대를 살아왔듯이, 사진은 근현대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시대의 거울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방치되었거나 분산 관리되고 있는 사진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시급한 실정이며, 사진아카이브의 필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사진아카이브를 구축하려는 다양한 실천들을 살펴봤는데, 아카이브가 ‘지역 내 집단적 기억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장소’라면<sup>4)</sup> 사진은 기억의 저장소 또는 보존소라는 점에서 아카이브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 지역에서 생산된 수많은 사진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사진아카이브를 구축한다면, 지역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지역사 및 생활사 연구 그리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역공동체 중심의 사진아카이브 작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지역사회가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정체성을 토대로 구성원들을 통합하고 연대의식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때, 이 작업은 도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자신들이 몸담았던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민들에게 잃어버린 추억과 그로 인해 무뎠던 정체성을 복원시켜주는 ‘기억재생작업’이며, 타 지역민이나 이주노동자들처럼 새로 이주해 온 이방인들에게는 원주민과 쉽게 동화되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집단기억공유작업’이다. 나아가 세대간·계층간 공감과 공동체 의식을 이끌어내는 ‘지역문화원형복원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더 많은 사진아카이브 실천들을 기대해 본다. **IN**

### ● 필자 소개

사진아카이브연구소 대표, 『한국 근대 사진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근대 사진아카이브 구축과 근현대 아카이브 관련 전시 및 출판 일을 하고 있다. 《기념사진전》(1999), 《벽의 예찬, 근대인 정해창을 말한다》(2007), 《임응식, 기록의 예술, 예술의 기록》(2011) 등의 사진전을 기획했으며, 저서로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2005), 『경성, 사진에 박히다』(2008), 『제국의 렌즈』(2010) 등이 있다.

4) 김은주, 『지역 아카이브즈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23쪽